

1분기 정비사업 수주 11조... '대어' 압구정·성수 빅매치 예고

삼성물산, 5건 3.5조 수주 '선두'
GS건설, 재개발 2.1조 성과 2위

압구정·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대형 사업 시공사 수주전 가열

건설사들이 연초부터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간 부동산 경기 침체와 수익성 악화로 몸을 사렸던 것과 달리 급등한 공사비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데다 입지가 좋거나 상징성이 있는 사업자가 대거 시공사 선정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10대 건설사들의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11조원 안팎으로 집계됐다. 1분기만 놓고 보면 2023년 4조5000억원, 2024년 4조원으로 수주실적이 저조했던 데서 2배가 넘게 급증했다.

1분기 정비사업 수주에서 선두주자는 삼성물산이다. 모두 5건, 총 3조 5560억원 규모다. 그간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반도체 공장 건설이 주축하면서 도시정비사업에서 일감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물산은 올해 1월 한남4구역 재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차 아파트 전경. 최근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된 삼성물산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안상미 기자

개발(수주액 1조 5695억원)을 시작으로 송파 대림가락 재건축(4544억원)과 방화6구역 재건축(2416억원), 송파 한양3차 재건축(2595억원), 신반포4차 재건축(1조 310억원)을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한양3차의 경우 먼저 시공권을 가져간 대림가락 재건축 사업과 연계한 새로운 통합 재건축 모델을 조합에 제시해 좋은 결과를 냈다. 두 단지의 재건축 사업을 각각 진행하면서도 한 단지처럼 운영하는 계획을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장위8구역에서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점을

감안하면 상반기에만 4조원이 넘는 수주실적을 올릴 전망이다.

GS건설도 삼성물산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 부산 수영1구역(6374억원)을 시작으로 중화5구역(6498억원)과 봉천14구역(6275억원), 상계5구역(2802억원) 등 모두 재개발 사업에서 성과를 냈다. 총 2조1949억원 규모다.

롯데건설은 신원산역북측1구역 재개발(3522억원)과 상계5구역 재개발(4527억원), 부산 연산5구역 재건축(7017억원), 수원 구운1구역 재건축(3483억원) 등을 가져갔다. 상계5구역

은 GS건설과, 연산5구역과 구운1구역은 현대건설과 함께 수주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광장동 상록타워아파트 리모델링과 함께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1조 2972억원)으로 성과를 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강원 원주 단계주공 재건축과 부산 광안4구역 재개발, DL이앤씨는 연희2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대우건설과 SK에코플랜트, 현대엔지니어링 등은 1분기에는 수주 실적이 없다.

건설사들의 수주전은 앞으로 더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압구정을 비롯해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어서다.

압구정 2구역이 오는 6월 시공사 선정 공고를 낼 예정이다. 공사비만 2조 4000억원 안팎에 달한다. 3구역은 연내 시공사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지난달 말 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 결정이 고시됐다. 총 4개 지구로 9428세대의 대규모 사업이다. 성수1지구의 시공사 선정이 연말로 예정됐지만 건설사들은 조합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여는 등 분위기는 이미 가열됐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카드 News

신한카드

쏟아진 티머니 고객 포인트·커피쿠폰 선물

신한카드가 '쏟아진 티머니' 고객을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30일까지 이벤트에 응모하고, 쏟아진 티머니를 최소 1회 이상 이용한 고객에게 ▲발뮤다 더토스터프로 ▲메가커피아메리카노 등을 선물한다. 추첨을 통해 총 1003명을 모집한다.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6000마인신한포인트를 지급한다. 쏟아진 티머니 누적 5일 이용 시 1000포인트를 증정하며 10일 이용 시 2000포인트를 추가로 적립한다.

'쏟아진 티머니'는 신한쏠페이 앱에 카드를 등록해서 사용하는 후불청구형 교통서비스다. 스마트폰 접촉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또는 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를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현대카드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 사업지원 서비스 제공

현대카드는 2일 '현대카드마이 비즈니스 씨릿'을 공개했다.

이번 상품은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 사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상 영역에 집중한 프리미엄 혜택을 담았다. 부가세 등 각종 세금신고 지원, 사업차 매출 및 상권 분석 등 종합 서비스 등을 준비했다.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의 1.5%를 M포인트로 적립한다. 사업자들의 결제 빈도가 높은 가맹점은 사업성 경비 영역으로 분류했다. 매월 최대 3만 M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

매년 20만원 상당의 바우처도 제공한다. 롯데·신세계 등 백화점 상품권으로 교환하거나 반얀트리 서울·포시즌스·파크하얏트 등 주요 특급호텔 및 더현대드래블에서 등에서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다.

삼성카드

iD 스테이션 카드 2종 주유·엔진오일 할인

삼성카드가 '삼성 iD 스테이션 카드' 2종을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SK에너지 및 GS칼텍스에서 주유 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 한도는 월 최대 3만 5000원이며 전월 실적 4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SK에너지 제휴카드는 스피드메이트 차량점검 서비스도 제공한다. 엔진오일 교체 시 2만원 할인 혜택을 연 2회 지급한다. 차량 안전점검, 타이어 펌크 수리, 타이어 위치 교환 서비스는 각각 연 1회씩 마련했다.

GS칼텍스 제휴카드는 GS&포인트 자동 적립 서비스를 탑재했다.

'법인고객 모셔라'... 가상자산업계, 점유율 경쟁 전초전

업비트·빗썸 등 사전가입 개시 코인원·고팍스, 유치방안 모색

법인의 단계적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고객 확보를 위한 전초전에 돌입했다. 각 거래소는 법인 고객을 위한 사전 가입을 개시하고, 방문 상담과 투자 안내를 제공하는 등 하반기 확장되는 법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빗은 지난달 홈페이지 내에 법인회원 가입 신청 서비스를 오픈했다. 홈페이지 내에서 즉시 가입이 가능한 개인 고객과는 달리 사업자등록증명원, 인감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 가입을 신청하면 담당 직원이 별도의 가입 안내와 투자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

된다.

아직 법인 고객 모집을 개시하지 않은 코인원과 고팍스 또한 내부적으로는 금융당국의 법인 투자 허용에 발맞추기 위해 법인 고객 유치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단계적으로 허용될 예정인 만큼 거래소들이 추후 점유율 확대를 위해 고객 선점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분기 내 시행을 목표로 지정기부금단체·대학 등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 운영 이후 하반기에는 상장 법인과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에도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한다는 목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앞서 지난 2월 개최한 가상자산 업계 및 전

문가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거래 허용 시기를)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는 4월 중, 상장기업과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는 3분기를 목표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계획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2분기부터 허용되는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현금화 허용만으로는 시장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하반기에 가상자산 거래가 일반 법인까지 확대될 경우, 가상자산 시장에 대규모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고 있는 해외 주요 거래소에서는 법인 투자자의 거래 비중이 전체 거래의 70~80%에 달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각 거래소 차원에서는 법인 고객을 선점하기 위해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면서 "4월 중으로 1차 가이드라인이 공개되면 거래소 간에 법인 고객 선점 경쟁이 더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간 경쟁이 '점유율 싸움'으로 돌입한 만큼, 새롭게 시장에 진입할 법인 고객 확보는 각 거래소에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점유율 1~2위인 업비트와 빗썸이 전체 거래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 다른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시장 점유율이 높은 2개 거래소는 수수료 만으로도 매출을 확보할 수 있지만, 다른 거래소는 매출이 비용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기존 고객을 끌어오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장에 새롭게 진입할 법인 고객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삼성물산, 에스토니아에 소형원전 짓는다

민영 원전기업과 SMR 시장 공략

삼성물산이 에스토니아 소형모듈원전(SMR) 프로젝트 사업 협력을 통해 본격적인 유럽 SMR 시장 확대에 나섰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에스토니아 비즈니스 허브에서 열린 '에너지 미션 컨퍼런스'에서 에스토니아 민영 원전기업인 페르미 에너지아와 현지 SMR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TA)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페르미 에너지아는 에스토니아 SMR 건설을 위해 2019년 현지 에너지·원전 전문가들로 구성해 설립된 기업이다. 지난해 2월에는 에스토니아 수도인 탈린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지역 두 곳을 사업 예정지로 공개하고, 이 곳에 비동형 경수로(BWR)를 개량한 300MW 규모의 SMR 기술 'BWRX-300'을 도입한다고 발표한다. 삼성물산은 이번 협약을 통해 페르미 에너지아가 추진하는 SMR 건설



페르미 에너지아 칼레브 칼레벳 최고경영자(CEO·왼쪽)와 삼성물산 건설부문 김정은 원전영업팀장(상무)이 에스토니아 소형모듈원전(SMR)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삼성물산

'BWRX-300'은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과 일본 히타치의 합작사인 GE 히타치에서 개발한 SMR이다.

삼성물산은 이번 협약을 통해 페르미 에너지아가 추진하는 SMR 건설

에 대한 사업 구조 수립·비용 산정, 부지 평가 등을 수행하는 개념설계(Pre-FEED)부터 기본설계(FEED)단계에 이르기까지 사업 초기단계부터 참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